

국내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연구

A Study on User Experience Study of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Service

구해나¹, 김승인^{2*}

Haena Koo¹, Seung In Kim^{2*}

요 약

본 연구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만족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자 경험 측정 도구로는 스티븐 앤더슨(Stephen P. Anderson)의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을 기반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이용 계층인 공연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결과 태스크(Tasks) 중심의 기능적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경험(Experiences) 중심의 정성적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용자 경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을 더욱 세심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험 측정 요인이 향후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용자 중심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공연예술,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자 경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user experiences with performing arts digital archive services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of user satisfaction and suggest strategic directions for service enhance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A structured survey instrument based on Stephen P. Anderson's emotional interface framework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was administered to professionals in the performing arts sector, the primary user demographic of such services. The findings indicate a rel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ask-oriented functionalities, whereas experiential and defective dimensions yielded comparatively lower satisfaction levels, highlighting the need to incorporate more refined interactive elements that enhance user engagement. The user experience metric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user-centered innovation and optimization of performing arts digital archive services.

Keyword : Performing Art, Archive, Digital Archive, Archive Service, User Experience

1 Department of Design Management, IDA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koohaena@mail.hongik.ac.kr

2 Department of Digital Media Design, IDA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r2d2kim@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pril 24, 2025), Review Result(1st: May 18, 2025, 2nd: May 30, 2025), Accepted(June 9, 2025), Published(June 30,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공연예술(performing art)은 문학, 미술 등 다른 장르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바로 찰나에 연행된 후 사라지는 무형 예술이라는 점이다 [1]. 이에 따라 공연을 기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단순 기록에 그치던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 공연 작품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와 질서를 유지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및 아카이빙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카이브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경험 조사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요소별 만족 요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아카이브 정의

기록학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는 기록의 전자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또는 저장소로 정의된다 [3]. 과거의 아카이브가 단순히 문서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대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서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존 체계는 이전의 체계에 비해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적은 비용과 최소한의 공간으로 많은 양의 기록과 자료를 보존할 수 있으며, 검색도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와 디지털 혼용 방식은 점차 줄어들고 디지털 생산과 보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5]. 또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과 유사하다. 다음 [표 1]은 분류 체계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의 차이점을 정리한 표이다 [6].

[표 1] 분류 체계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의 차이점

[Table 1] Differences in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by Classification System

구분	관리 대상	관리하는 정보	주요 서비스 방법
도서관	원고 집필과 편집을 통해 출판된 도서	도서의 내용	열람, 대출

박물관	인류에 의해 생산된 유무형의 문화유산	박물관 개개의 물리적, 내용적 정보	전시, 연구
아카이브	업무나 활동 등 일정한 맥락 속에서 생산된 결과물	기록 집합체의 맥락적, 내용적, 물리적 정보	열람, 전시, 연구

2.2 국내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은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의미한다. 관객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작품이 실체화되어 가는 형태의 예술로서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7]. 오늘날의 공연예술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표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관객들을 집중시키고 소통하며 공연의 완성도에 기여하고 있다 [8].

따라서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예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기록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작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을 통해 공연이 이루어진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공연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9]. 다음 [그림 1]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기능을 정리한 그림이다 [10].



[그림 1]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기능

[Fig. 1] Functions of the Performing Arts Archive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을 설립해 예술 아카이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4개의 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중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카이브 관계기관 협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2021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년에는 ‘국립극단’이 참여해 총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특히 2018년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를 기반한 자료들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연 문화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 검색 서비스 ‘K-판(K-PAAN: Korea Performing Art Archives Network)’을 열어 약 44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11]. 공연 문화예술 아카이브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공연 문화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 검색 서비스 현황(2022.12.09. 기준)

[Table 2] Performance culture and Arts archive Network 'K-PAAN'

구분	국립 국악원	국립무형 유산원	국립극단	국립중앙 극장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계
보유 자료 수	13,300	70,756	25,829	45,009	54,087	234,992	443,973
통합 검색 사이트	공연 문화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K-판’(http://www.iha.go.kr/k-paan)						

2.2.1 국악 아카이브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통 음악, 무용, 연희부터 창작 국악까지 다양한 국악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48만 점 이상의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자료를 제공하며, 국악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12].

2.2.2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통 공연, 전통 기술, 전통 지식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 공연, 전시, 교육부터 학술조사 연구 자료까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자료를 공개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13].

2.2.3 국립극단 아카이브

국립극단에서 개발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한국 연극의 기록을 담은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제공한다. 공연, 인물, 기록, 등장인물, 학술, 장소, 사건 등의 정보를 상호 연결하여 탐색할 수 있으며, 공연 정보와 연출가, 배우,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14].

2.2.4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중앙극장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별별 스테이지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연예술박물관 소장자료를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15].

2.2.5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발굴하고 확산하

기 위해 아시아문화에 관련된 원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다. 건축, 종교, 의례, 생활문화 등 다양한 주제별 컬렉션과 기증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16].

2.2.6 한국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코예술기록원은 국내 최대의 예술자료 전문 디지털 아카이브로 한국 근현대 예술사를 돌아볼 수 있는 예술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구술 채록, 무대미술, 민화 화본, 공연대본, 공연영상 등 다양한 기획컬렉션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하려는 방안으로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17][18].

2.3 선행 연구 분석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아카이브 수집, 보존, 활용,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 이용자 인식 및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 아카이브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기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보존과 열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19]. 이에 본 연구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자의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공연예술 개념을 가지는 하위 분야를 포함하여 특정 대상 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했으며, 공연예술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자료를 다루었다.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선행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선행 연구

[Table 3] Prior research of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구분	연구자	참고문헌
아카이브 현황	김도연(2019)	「공연예술 영상기록의 현황과 과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을 중심으로-」
	이재필(2017)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 방안」
	명현, 김현옥(2014)	「국립국악원의 전통 공연 예술자료 수집 현황과 전망 -국악 아카이브 수집 현황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사례 분석	정주영(2022)	「국립극단과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비교 연구」
	박소현(2021)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통춤의 창의적 계승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국악원의 재현 사례를 중심으로」
	송귀섭(2021)	「예술기록 수집 및 활용사례를 적용한 효율적 기록관리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아르코예술기록원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기록화 방안	주선영(2021)	「퍼포먼스 아카이빙 방안 연구」
	설인재(2012)	「국내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발전 방안 연구」
	이범환(2009)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아카이브 개선 방안	오경한, 김건(2023)	「영미권 공연예술 아카이브 비교·분석을 통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록정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허진(2022)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실태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여진원, 윤지수(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아카이브 이용자 인식 분석	권소현(2022)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 웹서비스 이용동기, 품질, 시스템 인프라 인식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K-PAAN 기관을 중심으로」
	박용민(2019)	「창작 목적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컬처링(Culturing)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허정은(2018)	「국악 공연 실황 영상 콘텐츠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이용자를 중심으로」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절차

국내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자 경험 연구를 위해 공연예술과 예술사 분야의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히 이용되는 국립중앙극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

[표 4] 온라인 설문 응답자 인구 통계

[Table 4] Population statistics of Online surveys

문항	구분	빈도(N)	비율(%)	문항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2	30	직업	학생	4	10
	여성	28	70		회사원	2	5
연령	20~29세	4	10		프리랜서	6	15
	30~39세	20	50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8	20
	40~49세	12	30		문화예술 종사자	20	50
	50~59세	4	20		자영업	0	0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용자 경험 분석에 앞서 공연예술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 현황과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50대 남녀를 대상으로 2023

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60명의 응답자 중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고 총 40명의 응답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3.2 평가 방법 및 분석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성 측정을 위해 스티븐 앤더슨의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을 사용하였다.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은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형에서의 다양한 사용성 요인과 매슬로우(Meslow)와 패트릭 조던(Jordan)의 위계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20].

총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 수집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외 6가지 객관식 문항을 함께 구성해 사용자의 경험 만족도를 깊이 있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조사 속성 항목은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요인별 설문 조사 속성

[Table 5] Survey Properties by Factors

요소	질문 내용
기능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제공하는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신뢰성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
	접속 장애나 버퍼링 등이 적고 서비스가 안정적이다.
사용성	연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었다.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편리성	메뉴 구성과 정보 검색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단순하고 화면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유희성	아카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감동적인 요소들이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제 공연과의 차별화된 경험을 느꼈다.
의미성	해당 공연을 관람하지 않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공연 예술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다.

[표 6] 공통 설문 조사 주제

[Table 6] Common survey Properties

질문 내용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자료와 정보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추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비추천 이유는 무엇인가요?

3.3 설문지 결과 분석

3.3.1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사용 현황

온라인 설문 조사 응답자의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빈도와 이용 경험은 [표 7]과 같이 집계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0%인 26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카이브를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당 평균 2.5개의 아카이브를 이용하였고,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선호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2명(26.7%), 국립국악원 26명(21.7%), 국립중앙극장 24명(20%)으로 집계되었다.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 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 지속 의향에 대한 응답은 표준편차(SD) 1.131, 평균(M) 3.95로 나타났다.

[표 7]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사용 현황

[Table 7] Use status of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문항	구분	빈도(N)	비율(%)	문항	구분	빈도(N)	비율(%)
아카이브 이용빈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4	9.1	아카이브 이용경험	국립국악원	26	21.7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	18.2		국립무형유산원	14	11.7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2	27.3		국립극단	16	13.3
	한 달에 한 번 정도	4	9.1		국립중앙극장	24	20
	몇 달에 한 번 정도	12	27.3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8	6.7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4	9.1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32	26.7

3.3.2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 현황

다음의 [표 8]과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사용자가 아카이브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아카이브 자료 검색/열람’, ‘온라인 콘텐츠 열람’, ‘예술 정보 동향 파악’의 순으로 1~3위를 차지하였고,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1위 ‘공연예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영상, 칼럼 등)’, 2위 ‘공연문화/예술 관련 주제 및 컬렉션’, 3위 ‘공연예술문화연구 및 동향 분석 자료’로 나타나 온라인 열람 가능한 콘텐츠 및 정보 위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목적

[Table 8] Selection factor of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아카이브 자료 검색/열람	도서 간행물 자료 검색/열람	공연예술기관 건립 및 기록 자료 열람	온라인 콘텐츠 열람	예술 정보 동향 파악
빈도(N)	36	8	16	28	18
비율(%)	34.6	7.7	15.4	26.9	15.4

[표 9]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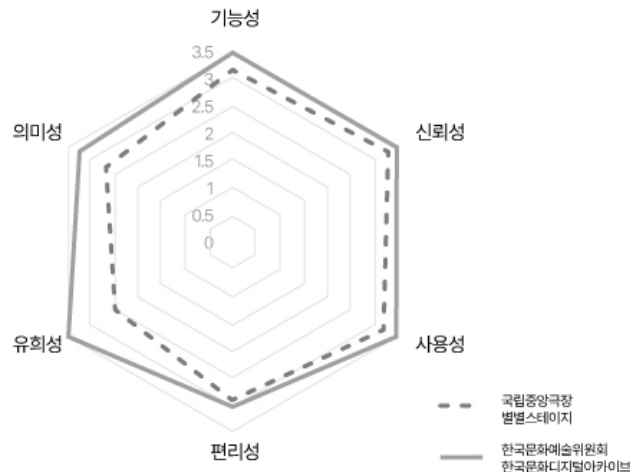
[Table 9] Use type of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주제별 컬렉션	전자책, 저널, 학술지 등	공연예술기관 건립 및 기록 자료	공연예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	공연예술 연구 및 동향 분석 자료
빈도(N)	32	16	16	40	18
비율(%)	26.2	13.1	13.1	32.8	14.8

3.3.3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요인 분석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요인별 분석을 통해 두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과 기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뢰성인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 항목 평균이 3.42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의미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제 공연과의 차별화된 경험을 느꼈다.’ 항목이 공통으로 가장 낮았다.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 결과를 [표 10]과 [그림 2]의 방사형 차트로 정리하였다.



[그림 2] 국립중앙극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요인별 결과

[Fig. 2] Standard deviation assessment graph for 2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표 10]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10]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urvey on Performing art Digital archive

요소	국립중앙극장 별별스테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디지털아카이브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R)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R)
기능성	3.5	0.753	1(2)	3.1	1.08	2(2)
신뢰성	3.5	1.049	1(2)	3.35	0.723	1
사용성	3.417	0.827	3(2)	3.1	0.728	2(2)
편리성	3.083	0.9	6	3.05	0.777	4
유희성	3.417	0.532	3(2)	2.45	0.847	6
의미성	3.25	0.635	5	2.65	0.859	5

3.4 심층 인터뷰 결과

설문 조사 응답자 가운데 6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를 고루 안배하여 접촉했으며, 약 1시간 동안 취지와 질문 내용을 설명한 후 가능한 현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리했다. 대면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질문지를 통해 답변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표 11]과 같다.

[표 11] 심층 인터뷰 대상자

[Table 11] Population statistics of in-depth-interviewee

	성별	연령	직업	전공 분야	인터뷰 일정
P1	여성	40대	학예사/기록연구사	현대무용, 기록학	2023.11.09.
P2	남성	40대	연출가	연출	2023.11.10.
P3	여성	40대	기록연구사	연기, 연극학	2023.11.12.
P4	여성	30대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한국음악학, 민속학	2023.11.12.
P5	여성	40대	학예사	미술사학, 박물관학, 문화유산학	2023.11.16.
P6	여성	30대	무대 디자이너	무대미술	2023.11.27.

3.4.1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에 대한 인식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긍정적이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멸실이나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1차 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로 변환된 콘텐츠는 실물 콘텐츠에 비해 뛰어난 활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유통, 가공, 보존 용이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21] 저작권 문제로 인해 디지털화된 자료를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많은 것을 불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연예술을 아카이빙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일부 입

장이 있었다. 공연예술 기록물을 데이터화 서비스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다.

3.4.2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방향

기본적으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범주가 수용자의 수집·보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경험 등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인터뷰에서 채록한 2명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다.

“공연 검색 기능만으로도 공연 창작자들의 인물관계(망), 학술 및 보도자료를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공연의 다층적,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였습니다. 특히, 근대 희곡이나 심의 대본 같은 오래된 대본을 온라인상에서 읽고 당시의 연극을 간접 경험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대를 풍미한 옛 거장의 모습이나 공연예술사를 가늠하게 하는 자료들은 이용자에게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재미와 관심을 넘어 학술적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공연예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카이빙 된 공연예술 자료는 시간예술의 유한함을 무한하게 만들어 주는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문제와 새로운 방향도 제기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2명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영상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없지만 스트리밍으로는 시청할 수 있으면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 문제를 극복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참여형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인들 개개인이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적 제약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아카이브가 모여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보존되고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중요한 점은 도서관, 박물관 등 기록물의 원출처와 질서가 분명하게 출발한 분야와 달리 공연예술 기록물은 출처와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서비스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4.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이다.

주요 이용층인 공연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소별 만족도 요인을 측정하고 선행 조사와 연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스티븐 앤더슨의 감성 인터페이스 모형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요소별 만족도 요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도출되었다.

전 사용자의 만족도가 하위단계인 태스크 중심의 객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가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위단계인 경험 위주의 주관적인 질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공연예술의 맥락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시사한다.

평가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요인별 개선 및 발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게 쉽게 카테고리별로 연결해서 보여줘야 한다. 검색한 정보를 공연 유형별, 인물/단체, 사건, 공간, 학술/보도, 공연자료 등과 같은 예술 및 사회적 활동, 공연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자료는 열람 불가 사유를 표기하여 해당 자료의 저작권 상태를 알리고, 디지털 형태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조치한다. 또한, 열람 신청 시 공문이 아닌 아카이브 내 신청 유형을 점검하여 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통해 유희성을 느끼는 것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공연 영상화 작품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실황 영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컬렉션 구성과 준비에 있어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4.2 연구 의의 및 한계점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도 진행되어 왔지만,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의 만족도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연예술 분야의 특정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가 아직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S. Lee, "Performing Arts Videos: Beyond the Record", *Journal of National Gugak Center*, no. 37, June 2018, pp. 59-79, doi: 10.29028/JNGC.2018.37.059.
- [2] J. E. Heo, "A study on the use and gratification of live video content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users of the archives of National Gugak Cente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 Public Relations, Konk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4906592>.
- [3] Seoul Metropolitan Archives, "What is the digital archives?", archives.seoul.go.kr, <https://archives.seoul.go.kr/ser-guide/faq>, (accessed December 3, 2023).
- [4] H. H. Hham, S. C, Park, "Digital Archives of Cultural Archetype Contents: Its Problems and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7, no. 2, December 2006, pp. 23-42, doi: 10.14699/kbiblia.2006.17.2.023.
- [5] S. H. Park, "A Study on the Creative Succession of Traditional Dance Using Digital Archives -Focused on the reenactment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Online]. Available: www.riss.kr/link?id=T15771390.
- [6] Archive cente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library, a museum, and an archive?", [archivecenter.net](https://www.archivecenter.net/members/archive/collection/ArchiveCollectionView.do?con_id=774), https://www.archivecenter.net/members/archive/collection/ArchiveCollectionView.do?con_id=774, (accessed December 2, 2023).
- [7] S. W, Choi, "A Study on the video Production according to Performing Arts Characteristic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1, no. 7, July 2020, pp. 1375-1382, doi: 10.9728/dcs.2020.21.7.1375.
- [8] D. J. Lee, "Study of Digital Technology Acceptance in Domestic Theatr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5, no. 2, December 2016, pp. 87-98, doi: 10.29056/jncist.2016.12.04.
- [9] B. H. Lee,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erforming Arts Archiv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9.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546511>.
- [10] S. H. Kwon, "Effect of performing arts digital's Motivation, WebQual, and System Infrastructure perception on user satisfactio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Performing Arts, Kyunghe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2.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6078017>.
- [1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signed among six performing arts institutions.", www.cha.go.kr,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812§ionId=b_sec_1&pageIndex=35&strWhere=&strValue=&mn=NS_01_02_02, (accessed December 2, 2023).
- [12] National Gugak Center, "National Gugak Senter Gugak Archive", archive.gugak.go.kr, <https://archive.gugak.go.kr/portal/main/introduction>, (accessed June 20, 2025).
- [13] National Gugak Center, "Gugak Archive operated by National Gugak Center", archive.gugak.go.kr,

- <https://archive.gugak.go.kr/portal/main/introduction>, (accessed June 20, 2025).
- [14]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Archive operated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ha.go.kr, <https://www.iha.go.kr/service/intro/archiveGuide.nihc>, (accessed June 20, 2025).
- [15]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Theater Archives operated by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rchive.ntck.or.kr, <https://archive.ntck.or.kr/front/intro>, (accessed June 20, 2025).
- [16]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Performing Arts Archive Platform 'Byeolbyeol Stage' operated by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rchive.ntok.go.kr, <https://archive.ntok.go.kr/ntok/cmm/serviceIntro.do>, (accessed June 20, 2025).
- [17]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Asia Culture Museum Archives operated by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archive.acc.go.kr, <http://archive.acc.go.kr/intro/outlineView.do>, (accessed June 20, 2025).
- [18] G. S. Song,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Improvement Applying Art Record Collection and Use Cases -Focusing on ARKO Art Archiv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Joongb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791229>.
- [19] Arko Arts Archive, “Korea Digital Archives for the Arts operated by Arts Council Korea”, daarts.or.kr, <https://www.daarts.or.kr/intro>, (accessed June 20, 2025).
- [20] H. S. Na, S. I. Kim, “A study on the User Experience of Athleisure Brand Communities by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2, February 2021, pp. 397-402, doi: 10.14400/JDC.2021.19.2.397.
- [21] S. G. Bang, Y. H. Kim, “A Study on the Necessity of Digital Archives for the Cheongju Craft Biennal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 10, no. 6, December 2021, pp. 691-701, doi: 10.29056/jncist.2021.12.09.